

데스크시각

고 경 석



지금 남도 들녘은 쌀농사를 짓기 위한 농부들의 모관 나르기로 분주하다. 그러나 한해 쌀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쌀값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다. 쌀 20kg 도매가격은 지난 1월 평균 3만4200 원으로 14년 만에 최저 가격으로 떨어졌다. 소비가 줄고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묵은 쌀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다. 쌀이 언제부터인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식량 자급률 계속 하락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2008년 26%에서 2020년엔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곡물 자급률은 콩 9%, 옥수수 1% 등어서서 1400만t이라는 엄청난 곡물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곡물과 달리 쌀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상존해 있다.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5%에 불과하다. 생산량 대비 유통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은 언젠가는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쌀은 대체

작물이 없는 독특한 상품이다. 밀이나 옥수수·감자가 우리 국민들의 오랜 주식인 쌀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쌀 20만t을 시장격리하고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논농업 다량화, 가공용 쌀 계약재배 확대에 나섰다. 벼 대신 콩, 옥수수, 밀 등을 심는 농가에 1ha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쌀 감산정책으로 본격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논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3만3ha를 타 작목으로 전환해 쌀 15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쌀농사에 비해 콩, 밀 농사는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기계화가 덜 돼 있어 농민들의 반응이 냉랭하다. 실제로 장흥군의 경우 대상 농지 335ha 중 26일 현재 8ha만 축소사료용인 총체 벼 재배를 신청한 상태다.

논에는 쌀농사를, 밭에는 밭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지키며 수십 년간 살아온 농민들이다.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농민들이다. 그 흔한 설명회나 토론회

논에 콩을 심으라고요?

한 번 없이 발표하자마자 1주일 내에 마감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더욱이 고려화된 농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도 쉽지 않다. 논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문제는 또 있다. 소득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특정 작물 재배로 우르르 몰리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콩 대란, 옥수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번 무너진 쌀 재배 기반은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 한때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

핀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근 태국과 베트남에서 값싼 쌀을 사먹으면 된다는 잘못된 정책으로 필리핀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 한 해 250만t이나 수입하는 신세가 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S. 쿠즈네츠 박사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식량이 자급되어야만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쌀 농정 새판을 짜야

식량을 자급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호주, 영국, 독일 모두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는다. 러시아도 곡물 자급률을 95%까지 올리기 위한 새로운 식량 안보 doktrinu를 채택했다. 중국 역시 콩과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을 계속 비축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토마토 등 재배농에 대한 보조금도 늘리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쌀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 식량 자급률은 높아질 리 만무하다. 이제라도 식량 안보차원에서 농정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임기응변 식의 쌀 감산 정책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시 설

새만금 사업, J프로젝트와 충돌 없어야

새만금 간척지 방조제가 착공된 지 19년 만에 준공됐다. 공사비 2조9천억원, 237만명의 인력과 91만대의 장비가 투입된 대역사(大役事)가 성공리에 마칠표를 찍게 된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총 길이 33.9km의 초대형 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ha의 국토를 확장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조8000억원을 들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한다고 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앞으로 20년간 21조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조달이 성과의 관건이다. 이 가운데 재정 투입분 10조원은 각각 22조원 규모의 세종시·4대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

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나머지 민간투자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자 유치에 새만금 사업의 성과가 달린 셈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이 자칫 광주·전남 현안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J프로젝트의 투자유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는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고려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킨다면 무안공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칫 무안공항과 군산공항 모두 공멸할 수 있다.

정부는 전북의 새만금사업과 J프로젝트 등 전남지역 현안사업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사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농민 고통 덜어줄 근본대책 세워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상기후와 6·2 지방선거 등으로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있다.

무엇보다 봄 날씨답지 않은 이상 저온 탓에 난방비 부담이 급증했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경우 8당 평균 가격이 830원으로 지난해 비해 22%나 올랐다. 반면 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상품성과 수확량은 떨어져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자재 가격 상승도 심상치 않다. 배포장용 농업용 박스와 시설하우스용 파이프 가격이 오르고 경운기·트랙터 비용 역시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0만원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일손마저 구하기 힘들어 어느 때보다 힘든 영농철을 맞고 있다. 지방선거와 희망근로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고추와 알타리 무 등 밭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실정이 이렇게 힘든데도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근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읍 들어 잦은 강우와 폭설, 이상기후로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나 농민들이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다. 농작물재해보험법 대상 품목에 방울토마토 등 대다수 농작물이 빠져 있다. 또 보상기준도 태풍이나 우박 등에 한정돼 병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번기 구인난에도 농촌일손돕기와 같은 임시방편이 고작이다. 고려화된 농촌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서는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희망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나해 우리나라의 농가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농가의 살림살이가 나이지기는커녕 더욱 파탄해졌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농민들의 고통을 덜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無 等 鼓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전에 고위직을 지낸 분과 점심자리에서의 일이다. 그분은 대뜸 필자에게 식사의 고통을 느꼈다. 푸짐 반, 푸짐 반 늘어 놓았다. “요즘 밖에서 점심 먹기가 괴롭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은 혼자 점심을 해결하기가 고역이에요. 홀로 식당에 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친구들을 불러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우리네 정서상 혼자 하려면 영 어색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식사다. 물론 가끔은 조용히 혼자만의 식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혼자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사먹으면 왠지 초라해 보인다. 남들의 시선도 느껴진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홀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퇴직자, 혼자 사는 노인 등 또 직장인도 예외가 아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약속이 없으면 초조해진다는 사람도 있다. 상사가 점심 약속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같이 먹여주기도 한다. 이를하여 ‘밥 사역’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하루 세 끼를 모두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무려 30%나 된다고 한다. (日 후생 노동성 통계) 이렇게 홀로 밥을 먹는 것을 ‘고식(孤食)’이라 하는데 일본인들의 고식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음식점들은 고식 손님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혼자 앉아 먹어도 부담 없는 카운터석을 많이 둔다. 이곳이 꼭 차편 합석을 권한다. 합석 손님끼리 고기 굽는 불판을 함께 쓰도록 하는 곳도 있다. 손님들도 이를 당연히 여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개인주의 경향으로 고식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영양학자들은 고식이 제한된 메뉴선택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우리의 정서를 앞세워 고식을 경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고식에 대한 시스템과 인식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홀로 식사



기 고

설 상 욱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야간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 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문제의 법 조항을 오는 6월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내에서는 재판을 법 폐지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법 폐지 이전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할가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를 직접 관리하는 경찰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이라 하지만

는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집시법이 개정되어 국민행복권과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집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실효될 기간이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 집시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집회의 자유와 헌법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지난 일이지만 그 예로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쪽에서는 지난 촛불 집회 때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지 않고 강제 진압하지 않았다면 불법과 폭력이 일어났을까 하고 반문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를 방지했을 경우 어두운

학생 참고서 등에 쌀 홍보문구 넣어 소비 늘렸으면

쌀은 넘치고 가격은 폭락해서 농민들은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죽을 맛이다. 그래서 쌀 대신 다른 곡물과 대체작물을 심자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은듯하다.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밥을 안 먹고 인스턴트 식품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출산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하는 청소년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 중 하나다. 앞으로는 초중고 교과서와 교과서 차례 페이지 첫머리에 “아침 밥을 먹고 등교합시다” 혹은 “우리 쌀로 지은 아침밥을 먹어야 학교에서 허기지지 않습니다”라는 캠페인성 홍보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

교과서와 참고서에 그런 문구를 넣고 흥

▲정현경·목포시 연산동



심 상 돈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별의별 환자를 만나다.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 또는 진료에 대해 고맙고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심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는 마음자세로 의업을 행해야하는 것이 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지만 의사와 사립이 다르다. 여러 다양한 환자를 접하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마련이다. 의사들은 어쩔 때 환자가 고맙거나

‘환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의를 준다’고 답했다.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나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응답은 24.5%, ‘전혀 내색하지 않는다’는 22.4%로 나타났다.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질타한다’는 답변도 2.7% 나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알미운 환자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개원의와 교수·전공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개원의 응답자의 경우 내색하지

고마운 환자 알미운 환자

알미운 감정을 갖게 될까에 대해 대한 의사협회 신문에서 전문패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환자가 고맙게 느껴진 때’를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다시 찾아가고 고마움을 표시할 때’란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지시대로 따르는 환자’(40.8%)가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병원 소개를 잘 해주는 환자(7.5%), 병원을 옮겨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환자(4.8%), 자신의 속마음까지 모두 털어놓는 환자(0.7%), 공금한 점만 물어보고, 다른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을 때 (0.7%) 등 순이었다.

‘알림이 느껴진 때’를 묻는 질문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병이 안 낫는다며 불평할 때’가 1위(27.2%)로 꼽혔다. 2위는 근소한 차로 ‘헛똑똑’형, 즉 ‘인터넷’ 등으로 얻은 지식을 맹신하며 진단이나 처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23.1%)로 나타났다.

이어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조르는 환자(19.0%), 청탁으로 온 환자가 은근히 VIP 대접을 요구할 때(10.2%), 별다른 증상이 없는 데도 약 처방이나 주사를 놓아달라고 조르는 경우(8.2%), 다른 병원이나 의사와 비교하는 환자(6.8%) 등 순으로 답했다.

‘환자에게 알미운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